

7. 27 이 전하는 사랑의 전설

조선에서의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은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렬치절한 전쟁이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가 우려하던 제국주의자들과의 준엄한 대결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는 세상을 놀래운 기적중의 기적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지략과 전략전술이 낳은 승리인 동시에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낳은 빛나는 승리였다.

승고한 화폭

주체 39 (1950) 년 7 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야전차가 립진강가에 이르렀을 때 적의 폭격으로 하여 다리는 몽텅 끊어져있었다.

립진강물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행원들에게 이 근방에 철다리가 있을테니 그곳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지척도 분간할수 없는 캄캄한 야밤에 그것도 언제 적기가 달려들지 알수 없는 위험한 속에서 철다리의 침목을 넘어가자는 수령님의 말씀에 수행원들은 절대로 못가신다고 안타까이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전선의 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다고, 전선에서는 이 시각도 전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주저하겠는가고 하시며 어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달도 없는 야밤에 립진강철다리를 건너 전선의 군인들을 찾아가시였다.

정녕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승고한 화폭이였다.